



《하얀 아오자이》
응웬반봉 지음 | 배양수 옮김 | 박선양 그림 | 동녘 | 294쪽 | 값 12,000원

베트남 소설 응웬반봉의 《하얀 아오자이》 늘 푸른 젊음과 벗하는 소설

글_이주연 기자

1973년 발표된 베트남 소설이 1980년대 우리나라에서 번역되어 운동권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제3세계 문학작품을 소개하는 이 꼭지를 반 년 넘게 진행하면서 처음 만난 특별한 경우다. 《사이공의 흰 옷》은 당시 대학가에서 해적판이 나돌 정도로 많은 학생들의 사랑을 받았고, 이 소설이 지닌 사회주의적 색채 때문에 '의식화 교육'의 '교과서'로 쓰이기도 했다.

1960년을 전후하여 사이공을 무대로 학생운동에 투신했던 실제 인물인 '홍'이라는 여성의 투쟁을 그린 이 소설은 평범한 소녀였던 주인공이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건 공산당원으로 변화하는 과정과 잔혹한 고문 앞에서 동료들을 밀고하지 않는 굳건한 저항 정신 등을 꺾진하게 묘사해 당시 운동권 학생들의 필독서로 꼽혔다.

따라서 2006년 12월 이 소설의 원본인 《하얀 아오자이》가 완역되었을 때 책을 읽고 다소 '배신감'을 느낀 이들도 있을 것이다. 주인공의 이름부터 '홍'이 아닌 '프엉'이고, 의식화 과정의 묘사들도 많은 부분이 《사이공의 흰 옷》과는 다르다. 중역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자의 '의도'가 개입된 약간의 개작이 있었던 탓이다.

《하얀 아오자이》는 초기 베트남 혁명 문학의 선봉장 응웬반봉의 대표작으로 실존 인물인 응웬티쩌우라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쓴 소설이다. 중역본이 나온 지 20년 만에 저작권자와 정식 계약을 맺고 재출간된 이 책에서 베트남 혁명의 '색깔'과 '목소리'는 보다 선명해진다.

작가는 자신의 글쓰기에 대해 "우리의 작품은 일반적인 운동 상황을 묘사하는 시사적인 자료일 뿐이다"라고 말하곤 했다. 사회주의 문학의 정신을 표현하는 이 말은 그의 문학이 투쟁의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극적이고 과장된' 묘사에 치중하지 않음을 뜻한다. 작품에서 프엉과 호앙의 사랑이나 프엉의 감옥 생활이 건조하리만큼 사실적으로 묘사되는 것은 그래서이다. 그러나 그 건조함은 논픽션의 기록 문학처럼 독자들에게 진실한 감동을 전달한다.

주인공 프엉을 비롯한 베트남의 젊은이들은 통일된 민족국가 형성이라는 민족사적 과제를 개인의 꿈을 유보하면서까지 자신의 문제로 떠안는다. 간호사를 꿈꾸던 평범한 시골 소녀 프엉은 여성 열사 사우의 삶을 연극으로 공연하면서 "더 큰 꿈"과 "다른 삶"에 대한 열망을 품게 된다. 그녀는 뜻을 같이하는 동료들과 함께 유급을 자처하면서까지 학내 투쟁과 해방구 투쟁을 벌인다. 같은 운동권 학생인 호앙을 만나 사랑을 느끼지만 그녀에게 "결혼은 아직 상상도 않고 있는" 일이다. 그러던 중 그녀는 경찰에 체포되고 거듭되는 고문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4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이겨낸다.

작가는 베트남 전쟁 당시 <인민일보>의 중군기자로 활동하면서 만난 응웬티쩌우 여사를 실제 모델이라고 밝혔지만 당시 베트남에는 주인공과 유사한 투쟁 경험을 간직한 학생이 적지 않았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에 시달리는 약소국가를 조국으로 둔 젊은이들의 운명은 어디나 비슷하다. 나 하나의 '참여'가 지금 당장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하더라도 나 하나라도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운동권의 '후일담' 소설이 한물간 이야기로 취급되는 21세기이지만 이 소설은 그런 '후일담'과는 거리가 있다. 베트남의 1960년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의 '늘 푸른' 힘은 오늘날 한국의 젊은이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상'을 위해 '나'를 바꾸는 열정은 젊음이 가진 특권이다. 이 소설은 바로 그 젊음과 벗하는 소설이다. *******